

SK telecom 진정한 혁신... 10개 스타트업과 5G 생태계 조성

(트루 이노베이션)

SKT-스파크랩스, 업무 협약 체결
서울에 스타트업 캠퍼스 개관 예정

SK텔레콤이 미래 유망 스타트업과 손 잡고 5G(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5G 시대를 이끌 10개 사업 분야의 스타트업과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1일 밝혔다.

10개 분야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지능영상보안, 스마트팜, 환경플랫폼, 미디어, 센서, 데이터관리플랫폼 등이다.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에 대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5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방, 공유, 협력 문화가 필수적이며, 외부 변화를 빠르게 수용해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상반기 내 서울 도심 한복판에 1400여평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



유용한 SK텔레콤 오픈콜라보센터장이 MWC2018 전시관 내 간담회장에서 스타트업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

스 ‘오픈 콜라보 하우스(가칭)’를 개관할 예정이다. 오픈 콜라보 하우스는 스타트업과 SK텔레콤이 기술 혁신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공간이다.

오픈 콜라보 하우스는 ▲아이디어 및

정보 공유 ▲사업화 검증 ▲비즈니스 성장(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성과공유 등 4개의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된다. 공간 사용 이외에도 테스트베드, 멘토링, 기업가교육, 전시공간, 포럼 네트워킹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번 MWC 현지에서 글로벌 창업지원기업(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스파크랩스는 오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에 투자와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향후 더 많은 글로벌 ICT 기업, 창업지원기업 등과 제휴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도울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트루 이노베이션(True Innovation)’ 브랜드를 론칭하고 스타트업과 5G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한다. 향후 홈페이지를 개설해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ICT 기술원 주도로 작년 9월부터 글로벌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스타트업 상생 프로그램 ‘TEAC(TIP Ecosystem Acceleration Center) 서울’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협력을 통해 통신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과 페이스북은 각자 MWC

전시관 내에 ‘TEAC 서울’에 선발된 스타트업 3곳의 별도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스타트업들인 트랜셀레셀, 유평텔라, 쿨클라우드사는 각각 ▲무선 광 통신 데이터 전송 ▲저전력 광 케이블 송수신 ▲가상화 기반 기지국 연결 전송 등 5G에 활용될 차세대 통신기술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해당 스타트업에 기술 컨설팅과 SK서울캠퍼스 사무공간을 제공해왔다. 또 해외 벤처 캐피탈, TIP 소속 기업 등과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트랜셀레셀은 이달 말까지 자체 개발 기술을 SK텔레콤 통신망에서 시험 운용할 예정이다.

TIP는 스타트업 3곳에 기술개발, 장비구매, 전시참가 등 목적으로 지금까지 총 약 1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유용한 SK텔레콤 오픈콜라보센터장은 “5G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4차산업이 태동하게 될 것”이라며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해 한국의 5G 생태계를 단단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T 전시부스에서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모여 전시 성료를 기념하고 있다. /KT

KT, 평창 이어 스페인서 5G 리더십 다져

‘5G 방송 중계 서비스’ 등 호평

KT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5G(5세대 이동통신) 리더십을 공고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세계 최초 5G, KT를 경험하라’를 주제로 다가올 5G 시대를 미리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전시했다. 특히 ‘5G 방송중계 서비스’는 여러 대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해 송출하는 5G 방송 중계를 시연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스페셜포스 VR: 유니버설 워’는 KT의 독자적 무선 VR(가상현실) 전송기술인 ‘VR 워크스루’ 기술을 적용해 게임 콘텐츠를 원격서버에서 실행하고 가볍게 휴대용 기반 HMD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아울러 KT가 독자 개발한 흔들림 방지 기술을 통해 VR게임의 문제로 지적되던 어지러움을 줄였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을 포함해 GSM A 사무총장,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KT MWC 전시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체험했다.

또 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8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차세대모바일네트워크(NGMN) 간담회에 참여해 5G 발전 방향과 KT의 5G 준비현

황을 발표했다.

MWC 2018 키노트 스피치에서는 GSM A 사무총장 매츠 그랜리드가 연사로 나와 KT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시범서비스에 대해 호평했다. 그는 “최근 방문한 한국의 평창에서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5세대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며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만들어내는 타임슬라이스 기술이나, 태블릿을 통해 경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마치 경기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KT는 MWC 2018 기간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베냉 정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 협력 체제를 강화했다. 아프리카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전자정부 구축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아프리카 정부들의 주요 인사와 미팅 및 제휴를 진행했다.

우수 중소기업 및 협력사들도 이번 MWC 2018에서 KT와 함께 전시에 참여했다. 전시장 전면에 배치한 ‘스내쳐 AI’의 5G 방송중계 서비스를 비롯해 ‘에프알텍’의 5G 서비스망 적용 장비인 5G DAS, ‘맥스트’와 ‘비베트’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원격지원 AR 영상통신 서비스, 다양한 보안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아이리시스’의 홍채·얼굴 인식 솔루션이 전시됐다. /김나인 기자

SKT, 바르셀로나에 한국 코딩교육 전파

SKT-텔레포니카

바르셀로나 초등학교서 코딩교육
‘스마트로봇 코딩스쿨’ 정규 운영

SK텔레콤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및 스페인 1위 통신사 텔레포니카와 협력해 한국 코딩 교육을 바르셀로나 현지에 알린다.

SK텔레콤은 바르셀로나 시내의 라 살 보나노바 초등학교에서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을 정규 교과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이 2014년 2월 선보인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은 6~10세 어린이들 대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스마트로봇 ‘알버트’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 어린이들이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인 코딩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 살 보나노바 초등학교에 도입된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은 전원 연결없이 코딩



2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라 살 보나노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스마트 코딩로봇 ‘알버트’를 이용해 코딩 교육을 받고 있다. /SK텔레콤

을 배울 수 있는 ‘아날로그 코딩교실’, 수학 능력을 키우는 ‘수학왕 알버트’, 스포츠를 접목한 ‘축구왕 알버트’ 등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코딩 교육용 교구인 스마트 로봇 ‘알버트’ 및 스페인어가

적용된 콘텐츠를 기증하고, 텔레포니카는 코딩교육 전문 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GSMA는 MWC연계 프로그램인 ‘MS쿨’을 통해 코딩 시범학교를 소개하며 기초 코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삼성전자 “5G로 네트워크 사업 도약... 점유율 2배로”

28GHz 고주파 대역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가 5G를 네트워크 사업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28GHz 고주파(밀리미터웨이브) 대역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LTE의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김영기 사업부장(사장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18’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는 4G보다 시장 점유율이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다”며 “5G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현지시간) 스페인 피라 바르셀로나 그란비아 전시장 외부에 삼성전자 갤럭시 S9 언팩행사를 알리는 배너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꾸준히 제기돼 온 네트워크 사업 매각설을 일축하며 28GHz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5G 주파수 대역은 크게 3.5GHz와 28GHz로 나뉜다. 저주파수 대역인 3.5GHz는 고주파수보다 데이터 전송량이 적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길고, 전송 속도도 빠르다. 반면 고주파 대역(밀리미터웨이브)인 28GHz는 도달거리가 비교적 짧지만, 대역폭이 넓어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다.

삼성전자는 28GHz 대역을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해왔고, 경쟁사인 화웨이는 3.5GHz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MWC를 참관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화웨이 장비가 삼성전자를 앞선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